

「제1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16회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에도 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 시상식은 수상자 및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8일(목)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지역노동 시장 중간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김민영 조민지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도시침수 고위험지역 선정을 위한 AHP-PROMETHEE 연계	이상은 이종소 김슬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상금 100만 원
	구철원 시가지의 장소기억 재구성	김지나 조경진 박한솔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제1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민영, 조민지, 임업의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지역노동시장 중간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논문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지역노동시장의 중간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논문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국가적인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종전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과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이용되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중단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개체 간 변화 궤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2000~201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노동시장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의 논의와는 다소 괴리가 있으나, 논문에서 보여준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접근은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의 대체 관계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상은, 이종소, 김슬예의 “도시침수 고위험지역 선정을 위한 AHP-PROMETHEE 연계” 논문은 도시침수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위험지역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검토한 연구이다. 도시침수에 대한 고위험지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위험정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AHP와 PROMETHEE를 서로 연계하여 각 격자대안의 비교우위를 검토함으로써 고위험지역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경기도 광주시에 적용한 실증분석도 매우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AHP의 주관적 민감성이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시침수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PROMETHEE 기법을 이용하여 각 격자대안이 갖는 성과의 차이를 선호도로 변환한 뒤 평가기준 간의 치환을 적절히 조율하여 고위험지역을 추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사료된다. 이를 높이 평가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지나, 조경진, 박한솔의 “구철원 시가지의 장소기억 재구성”은 ‘장소기억’의 개념을 기반으로 철원지역 역사경관의 재구성을 시도한 연구이다. 최근 역사경관의 복원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관정비와 보존 방향, 정부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인문학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복원과 활용이라는 기능적 문제의식을 벗어나서 ‘장소기억’이라는 인문학적 가치를 기초로 역사경관의 재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이 적절히 활용되었다. 향후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 분야에서 본 논문과 같이 이론적 관심과 인문학적 성찰에 기초한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